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2월 15일(금)

..(음력 1월 11일)..

Пятница

15 февраля 2019г.

№ 6(11682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아시아 아이들>유·청소년국제동계경기 개막식에서.
(관련 기사 3, 7면) (배순진 촬영)

사할린주, 사회적 상점망 확대

사할린주에서 사회적 상점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이 주정부에 제안했다. 국가예산으로 사회적 상점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보조금이 배당된다.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공공서비스비와 임대비 일부를 보상할 계획이다. 국가적 사업지원조치 덕에 사할린주는 현재 극동 연방구에서 소매무역 지표상 선두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가 소비시장 발전, 물가형성, 1차적 필수식품군의 가격 인상 억제 등의 문제들을 통제했다고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강조하고 "현재 우리는 저소득층 주민 지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혜택으로 식량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상점망 확대방안을 주정부 앞에 제출했다. 이미 사회적 상점 119개 지점이 영업 중이고 이들 중 33개 상점은 농촌지역에 있다. 사회적 상점의 상품 평균가격은 사할린주의 평균가보다 17% 저렴하다. 이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직거래시장에서 생산자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은 질 좋은 상품들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판매방식은 사할린지역에서 대중적이다. 작년에 직거래시장에서는 2017년보다 5억 루블리의 상품이 판매되었다.

올해 사할린주 정부는 상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보조금으로 5700만 루블리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업 비용의 보조금 지급은 소비상품 가격을 억제하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2018년 도매상품 거래액은 18% 증가한 1억 2600만 루블리에 달했다. 상점 수도 102개로 증가했고 주내 기업인들에게 운송비용으로 4900만 루블리를 보상했다. 작년 한 해 소비시장 방면에 유치된 투자액은 75억 루블리에 해당했으며 지역 예산에 세금 수익은 53억 루블리로 2017년보다 16% 증가했다. 현재 소비시장 부문에서는 사할린 주민의 20.7%인 58000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2025년까지 무역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사할린 지역에서 활성화된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와 일본 홋카이도 간 우호적, 경제적 교류 발전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2월 9일 사할린주 정부와 홋카이도 정부 간 2022년까지의 우호적 및 경제교류 발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리마렌코 왈레리 사할린 주지사 대행과 타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 지사가 서명했다.

타카하시 홋카이도 지사는 관광,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는 표명하며 한 예로 한 일본 회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다문화센터 건설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센터 건설과 관련해 올해 기획이 시작된다며 건설 수주 경연에 외국기업의 참가가 가능하고 문화시설에 현대적 장비를 갖춘 일본의 경험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주지사는 올해 주내에서 여러 문화적 축제 참가에 홋카이도 주민을 초대했다. 그외 임산물 가공 및 수증 생물 자원 가공, 건설, 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 제안도 논의했다.

이번에 사할린주를 방문한 타카하시 하루미 도지사는 사할린에서 열린 <아시아 아이들>국제 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 행사에도 참가한 일본팀을 격려하며 9일에 열린 아이스하키 경기(일본-사할린)를 관람했다.

그동안 양 지역의 지사들이 상호협력관계를 목적으로 여러 번 방문한 가운데 사할린주와 홋카이도는 20여 년째 상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단신

사할린에서 스포츠시설 신축, 문화 및 관광 분야 발전 계획

<아시아 아이들>청소년국제동계스포츠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사할린을 방문한 러시아 정부 올가 골로제츠 부총리(문화 및 스포츠 담당)는 대회 스포츠시설을 방문하고 사할린 스포츠학교 학생들과 교사진, 국제대회 선수단 단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지난 11일(월) 주정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총리는 사할린에서 전국스포츠캠프(영구적 정기 캠프)를 만들자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의 제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 약 5000명의 선수들이 입소할 수 있을 거라고 주지사 대행이 언급했다.

러시아 연방 스포츠부 파벨 콜롭코브 장관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육상 경기장 건설 기획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 주정부와 연방 정부 관계자들은 문화와 관광 분야 기획들도 논의했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루스키 박물관, 에르미타즈, 동양 박물관들의 소장품 전시를 할 계획이다. 나라의 선두 박물관 전시를 하기 위해 앞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현대 전시장 건설을 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올 9월 주지사 선거와 3구역 의회의원 선거 진행

올 9월 8일 선거일에 사할린주에는 주지사 선거와 유즈노사할린스크, 노글리키와 네웰스크구역에서 의회 선거가 있음을 주선거위원회가 밝혔다.

공식선거 발표는 6월 초에 있을 예정이고 현재 주두마에서는 주지사 선거(무소속 출마)에 대한 법안 개정 중에 있다.

2017년 주두마 선거에 주예산에서 1억3900만 루블리를 지급했는데 이번 주지사 선거에도 유사한 자금이 배당된다고 밝혔다.

사할린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주내 17개 구역에서 사회·정치상황에 대한 연구조사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에는 사할린 주민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는 앙케트 설문조사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두 번째 조사는 인터뷰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지사, 홈스크구역 방문

사할린주 지방들의 실태 파악 중에 있는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지사 권한 대행은 지난 12일 홈스크구역을 방문해 열공급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난방시설, 구역 중앙병원 등을 시찰했다.

앞으로 홈스크에는 가스보일러를 건설해 난방시스템을 전체 교체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들의 주요 문제는 의료진과 병원시설의 부족이 문제다. 병원과 진료소 건물들을 새로이 건설하고 의료진 유치에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주지사 측에서 알렸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구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1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동포애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 안양옥 대한체육회 이사와의 인터뷰

사할린에서 개최된 제 1회 <아시아 아이들> 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 43명이 사할린을 찾았다. 본사 배순신 기자가 한국 선수단 단장 안양옥 대한체육회 이사와 만나 소감과 선수단에 대해 알아보았다.

— 대한체육회 이사라고 하셨는데 대한체육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 국가의 지원 아래 대한민국체육회는 모든 종목(동계, 하계)의 단체를 관장하는 회입니다. 국가로부터 3000억 원의 지원을 받고 운영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국가위원회를 관리, 통합하고 최근에 엘리트 체육과 국민의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민간체육행정기구입니다.

— 한국에서는 사할린의 첫 아시아 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경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 이 대회가 1회잖아요. 작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공문을 받고 러시아에서 주최를 하는 아시아의 동계 청소년대회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동계 경기는 이번이 사할린에서 처음인데, 아시아청소년 하계 대회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5차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몽고에서 하계경기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팀은 하계에도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그렇게 많이 참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서 회장님에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합니다.

상위대회는 세계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하는 청소년올림픽이 있고 그 일환으로 청소년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고 있는데 이번 대회가 청소년 동계 아시안 게임의 출발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대회에 대한 소감은요?

이번 사할린 아시아청소년동계게임은 러시아 정부, 그리고 사할린주 정부에서 첫 대회로서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단들의 리셉션에도 경제부지사가 참가하고 다른 인사들도 참가한 것을 봐서도 알 수가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은 러시아 중앙 체육회에서 선정한 대표들로서 제 통역안내원은 모스크바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사할린 주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두고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선수단에게는 굉장히 친근감 있게 아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숙소는 팬클럽인데 다만 식사 문제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과 함께 간 한국 음식점의 음식은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아 좋았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로서는 영하 25도가 넘는 추운 날씨도 극복하는 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스포츠 경기인 만큼 학생들에게 경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경기 자체에 참가를 의미있게 여기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아보였습니다. 이곳 스키장, 시설, 설질도 다 좋더군요.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중요 대회를 앞두고 이곳에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와 함께

스키협회 회장도 오셨는데 스키장 실태 파악, 전지 훈련에 대한 조사를 하셨습니다.

— 이번 경기에 출전한 선수단은 전체 몇 명이고 선수 구조를 얘기하자면요? 어느 종목에서 승리 기대를 하셨습니까?

— 우리 선수단 모두가 43명이고, 그중 31명은 선수이고 12명은 코치, 감독 등 지원하는 분입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애슬론은 선수 4명, 임원 1명, 알파인 스키 선수 4명, 임원 1명,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4명, 임원 1명, 스키 점프는 선수 1명, 임원 1명, 스노우보드 선수 6명, 임원 1명, 피겨 선수 4명, 임원 1명, 쇼트 트랙은 선수 8명, 임원 1명입니다. 지원 임원 5명. 우리 선수단은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만 참가하지 않아요.

이번 경기에는 쇼트트랙만 아니라 피겨에서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유영이라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이미 유럽 주니어부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외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에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쇼트트랙은 동양인에게 최고의 종목입니다. 우리 나라는 쇼트트랙 강국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남녀 쇼트트랙 1500미터에서 금·은·동메달을 휩쓸었고 여자 500미터에서는 금과 은메달, 남자 500미터에서는 금은동 차지해 거의 석권을 했습니다. 저녁에 공식 수여식에 갔었는데 수여 장면을 보면서 처음 국제경기에 출전한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달도 올림픽 메달 못지 않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향후 청소년 스포츠 선수들 간에 교류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할린에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동포애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 오케스트라, 사할린지역 주민들을 탱고와 재즈의 세계로

연인들의 날을 즈음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 오케스트라가 사할린지역 주민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2월 15일과 16일에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에서 티그란 아흐나자란의 지휘로 <아메리카 길잡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공연이 열린다.

1970년대 뉴욕의 풍류에 흠뻑 젖어보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즈메들리를 연주한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아르헨티나의 탱고 클래식 작곡가, 유명한 '리베레 탱고' 작곡) 정열적인 음악이 비밀과 신비로 가득한 탱고의 세계를 열어준다. 이에 솔리스트 알렉산드르 로파틴과 로만 추비츠가 무대에 오른다고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에서 전했다.

입장은 자유이며 공연은 19시에 시작한다.
문의전화: 49-57-28.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погрузит островитян в мир танго и джаз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подготовил подарок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ко Дню влюбленных. 15 и 16

феврал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состоятся концерт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Тиграна Ахназяна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Америке: путешествие с севера на юг".

Для тех, кто желает окуну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Нью-Йорка 1970-х годов, прозвучит джаз-попурри. Мир танго, полный тайн и загадок, откроет темпераментная музыка Астора Пьяццоллы. Выступят солисты Александр Лопатин и Роман Чубич, сообщает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Начало в 19:00.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9-57-28.

사할린 주민들에게

<큰 세계에 대한 작은 명작>소개

<큰 세계에 대한 작은 명작>제6회 사할린주 아동 미술 창작 전시회 및 경연대회의 개막식과 시상식이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2월 18일 개최된다.

아동 미술가들의 경연대회는 2018년 말에 진행되었다. 이에 23개의 문화 및 예술 교육기관에서 9세부터 20세까지의 학생 336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아동미술학교, 예술학교의 미술학과 학생들과 사할린 전문예술학교의 미술 및 디자인학과 학생들이다.

미술 경연은 세 개 부문으로 (: <내가 사는 세상>, <식물과 동물의 왕국>, <아름다움을 찾아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430점의 작품이 모집되었다. 어린 영재들의 작품들을 사할린주의 미술교사, 러시아 연방 화가연맹회원, 박물관의 전시 및 전람 전문가들이

심사했다.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은 전시회에서 회화, 그래픽, 음악 리놀륨판화, 조각작품, 컴퓨터그래픽, 부속품 및 장식품을 관람할 수 있다.

<큰 세계에 대한 작은 명작>전시회 및 경연대회는 2002년부터 4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어린 미술 영재를 발굴하고 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개막식은 2월 18일 15시에 개최되고 입장은 자유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ставят "Маленькие шедевры о большом мире"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VI реги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конкурса дет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аленькие шедевры о большом мире" пройдут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18 февраля.

Конкурс юных художников прошел в конце 2018 года. В нем участвовали 336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9 до 20 лет из 23 учреждений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 учащиеся детски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школ,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отделений школ искусств и студенты кафедры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дисциплин и дизайн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На три номинации конкурса — "Мир, в котором я живу", "В царстве флоры и фауны", "В поисках прекрасного" —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430 работ.

(8면에 계속)

한국 국회에서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 통과 속히 추진, 무연고가 아닌 사할린 한인 추모관 철거하라는 의견 모아

이미 홍보된 바와 같이 지난 8일(금)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에서 주한인협회가 소집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강당에는 200여 명이 모였는데 돌린스크, 홉스크, 코르사코브 등지에서 온 한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사할린



한인 2세 문제, 사할린 한인에 대한 특별법, 가족 영주 귀국, 국적, 보상 문제, 사할린 한인 무연고 추모관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를 연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 한인단체들의 2년

간 추진해온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고 특히 2017년 동방경제포럼(블라디보스토크)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간담회에 사할린한인 대표단이 초대되어 문 대통령에게 사할린 한인들의 청원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주한인협회가 4년 전에 진행하는 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결과 2세들의 문제점도 부각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새고려신문 2017년 9월 15일호 발췌)

먼저, 12년째 국회에 표류 중인 '사할린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가족과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다음의 문제들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 일본 정부에 의한 사할린 잔류 한인 1세 도덕적·물질적 배상금 지급
 - 대한민국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위로금 지급대상 규정 완화(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음)
 - 일제강점기 강제 적립된 우편저금과 간이보험금 등의 회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협상 및 수령
 - 일본 정부에 의한 이중징용 광부 명단 공개(1944년8월 11일 일본 국무총리령)
 - 재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 또한,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후세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사할린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사실 이 기본 요청사항은 그대로다. 사할린 한인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이날 김홍지 사할린주한인노인회장, 이수진 주이산가족협회 명예회장 등이 언급하고 이들은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사할린 한인 동포 2세 이채인 씨는 이날 동포 2세 몇 분이 작성한 자제한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다시 요청서를 작성해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회에 전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제안을 주한인협회 사무실에서 18일까지 받고 있다. 최종 요청서는 오는 20일 한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 참가자는 만장일치로 이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아주 뜨겁게 논의된 문제는 사할린 한인 무연고 추모관이었다.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은 무연고 추모관에 거의 모두 연고가 있는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있고, 강제징용당한 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고 했다. 이에 회의 참가자들이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아래에 회의에 참석한 김영술 한국 전남대 교수의 글(페이스북에 올림)을 게재한다.

“특히 추모관 문제는 아직 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제사를 관광투어 장소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분노를 자아냈다.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화자가 많아 말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법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 참석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동의하여 추모관에 반대한다는 것을 거수 표결로 마무리 했다.

한국인 민간인 단체는 왜 사할린 한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해야 할것 같다. 이곳 한인들은 한국인과는 의식이나 문화 차이도 있지만 옛날 전통이나 생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현재 추모관을 철거하라는 소송은 사할린 한인 3인이 추진하고 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아시아 아이들>제1회 국제동계 청소년 경기의 이모 저모

새고려신문사 기자들의 취재 자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1회 <아시아 아이들>국제동계 청소년스포츠대회가 시작됐다.

2월 9일(토) 아침 10시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파크에서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드미트리 글루쉬코 <아시아 아이들>대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국제올림픽 위원회 대표 사미라 아스가리(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위원 아나스타시아 다위도바가 기자회견을 가져 첫 청소년동계국제경기가 사할린에서의 스포츠와 관광 발전에 큰 도약

자들이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해온 담요를 나누기 시작했다.

공연의 첫 프로그램으로는 <에트노스>의 한민족과 타악기단이 출연했다. 이들의 리듬에 맞추어 북방소수민족의 전통춤 공연이 이어졌다. <에트노스>공연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다. 개막 공연은 사할린의 역사를 주제로 대규모 화려한 공연으로 펼쳐졌다. 개막식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개막식은 마무리되었다.

사할린에서 사는 우리는 첫째로 사할린 선수들을 응원했다. 사할린 선수단 중에서

경기 5일째 결과 사할린팀이 메달 순위로 3위를 차지한다. 사실 기대치 않은 좋은 결과다. 사할린 선수들은 특히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스노우보드 등에서 금, 은, 동 메달을 따냈다.

사할린 동포들이 사할린팀 외에 특별히 응원하는 선수단은 대한민국팀이다. 한국팀은 5일간 메달로는 1위를 계속 했다. 이 나라의 많은 선수들이 쇼트트랙에서 출전해서 좋은 기술과 기량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할린에서는 아직 이 종목에



이 될 거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날 18시30분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대회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대회 전날부터 사할린에는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다. 9일 아침에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영하 32도였다. 개막식이 시작할 때는 영하 17-20도 정도 였는데 점점 추워졌다. 추웠지만 사람들의 기분에는 큰 동요가 없었다. 공식 행사 부분도, 화려하고 빛나는 공연도 모두 흡족했다. 다만 참가 국가 선수단과 출연자들이 너무 오랜 시간 눈바닥에 서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었다. 얼어붙는 추위로 다들 별별 떨고 있었다. 다행히 자원봉사

동포 한인 학생들이 있어 더욱 그랬다. 하키 종목에서 사할린 하키선수들은 자체 그룹에서 4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시베리아팀과 사할린팀이 경기할 때 사할린팀이 20:1로 패배했는데 하나의 골을 안니키타가 넣었다고 전해졌다.

팬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는 피겨다. 사할린에서는 이 스포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할린팀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그래도 피겨경기에 출전한 33명 여자선수 중 4명이 사할린을 대표한다. 이들은 쇼트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중간 순위에 들어갔다. 동포 선수 텐(전) 엘리나는 23위를 했다. 경기는 15일(금) 저녁에 마무리 된다.

출전하는 선수가 없다. 현재 러시아 선수들 중에서는 이 종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할린에서도 이 종목을 시작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필자는 1000미터 경기를 볼 기회가 있었다. 꽤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옆에 앉은 러시아인 사할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사할린 한인들과 함께 살아온 역사가 길다 보니 동포들을 우리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 당연스럽다고들 한다. 객석에는 한국 교민, 한인들도 꽤 많았다. 한 동포 여성분은 자기가 매 쇼트트랙 경기를 찾는다며 내일도 갈 거라고 필자에게 말했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Школьник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не испугались сахалинских морозов

Школьник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посетили Сахалин. На острове иностранные гости были с 11 по 14 февраля.

Первое, что удивило гостей — это холодная погода.



— Это моя первая поездка в Россию.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поездки потрясающие. Нас приняли очень дружелюбно, гостеприимно и тепло, так что холода оказались не страшны,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Ун Чонг Го.

На Сахалине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интересная программа: обучающее занятие, мастер-класс, посещение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афедрального собора, детский технопарк "Кванториум — Сахалин" и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рамках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визита иностранные гости проживали в семьях сахалинцев.

Прикоснуться лучше к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иностранные гости смогли н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мастер-классе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тряпичной куклы и обучающем урок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учителя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гимназии №2 Ирины Полькиной ребята создали из лоскутков ткани куклу "Северная берегиня". Считается, что эта народная кукла приносит в семьи благополучие. Меньше чем за час благодаря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е сахалин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школьники сделали замечательный сувенир.

Не менее интересно прошел обучающий урок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гимназии №2 Александра Смирнова предложила иностранным школьникам не просто изучить алфавит, а проявить при этом фантазию и творчество. Ребята представляли, на что похожа та или иная буква алфавита.

—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созданию тряпичной куклы. Это здорово, что мы сделали ее сами. Вообще, мне нравится в гостях на Сахалине, жить и общаться в русской семье, — сказал Донг Вон Жанг.

На память о поездке на Сахалин школьникам из Кореи подарили сувениры, сладкую продукцию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памятные фотоальбомы, на страницах которых собраны яркие моменты пребывания на острове.

Визит иностранных школьников на Сахалин стал возможен благодаря подписанному в 2016 году протоколу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епартамен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А в марте на Сахалин прилетит делегация школьников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обща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ланируется не только проводить подобные обмены, но и приглашать школьников из Кореи на интенсив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оторую мы проводим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с одаренными детьми Сахалина,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юдмила Сакович.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ХОДЯТ ПЕРВЫЕ ЗИМНИ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масштаб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ое проходит под эгидой ЮНЕСКО и патрон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рошл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9 февраля. По стадиону «Спартак»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шли 28 команд из 20 стран.

Приветственное слово участникам и гостям соревнований от имени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зачит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Ольга Голодец.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выполняют важную миссию развития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спорта, укреплен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людьми.

— Уверен, что «Дети Азии» станут на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ом, позволя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пособности, волевой характер и победный настрой, подарят всем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незабываемые впечатления, — прочитала Ольга Голодец обращени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портсменов и болельщиков с открытием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здравил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этом году игры особенные. Они — первые зимние и на Сахалине! Мы делаем всё, чтобы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и вы захотели к нам вернуться, — сказа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расширя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укрепляет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и. А в эти дни весь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объединила любовь к спорту.

Торжественные речи прозвучали от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РФ Павла Колобк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Самира Асгари и други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Действие продолжило гранди-

озное и незабываемое шоу.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выступили местные коллективы и звезды российской эстрады с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 заверш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хранили Огня игр зажгли стилизованный маяк, а небо над городом озарило праздничный салют.

В спортив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около 12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20 стран. В их числе — Казахстан, Монголия, Узбекистан, Туркменистан, Непа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Таиланд, Гонконг, Иордания, Таджикистан, Филиппины, Япония, Афганистан, Кыргызстан, ОАЭ, Индия, Кувейт, Сирия, Армения. Россию представляют команды из Москвы,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Башкортостан, Саха (Яку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ибирского, Уральского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Награды разыгрываются в восьми видах спорта: горные лыжи, сноуборд, биатлон, лыжные гонки, прыжки с трамплина,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шорт-трек и хоккей, сообщает дирекция игр «Дети Азии».

После пятого дня соревнований лидирует кома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 которой 7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всего медалей 20),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команда Москвы (6 золотых, всего 12), на третьем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1 (5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всего 16).

Большинство своих медалей команда Кореи взяла в шорт-треке, на котором им почти не было равных.

Сахалинцы проявили себя в



лыжных гонках, биатлоне, слаломе, сноуборде...

Хоккейная команда Кувейта проиграла своим соперникам с разгромным счетом 0-60, 0-77, 0-28, 0-54, ведь они встали нормально на лед лишь три недели назад. Болельщики Сахалина и других стран решили поддержать юную команду и на хоккейных матчах с участием Кувейта слышалось дружное скандирование «Го, Кувейт».

На площадк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ят различные культурные программы.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Игр состоится 16 февраля в 19:00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Юные анивчан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традициями встреч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 традициях встреч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рассказали юным анивчанам в местном доме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Встреча восточного Нового года"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совместно с анив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ели его в форме работы творческих мастерских.

Учащиеся дома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родители, бабушки, гости побывали на площадках "Оригами", "Поздравительная открытка", "Каллиграфия", "Народные игр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участницы мастерили корейские костюмы в стиле оригами,

готовили красочные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е открытки, делали карточки с пожеланиями удачи,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орейскими народными играми, попробовали блюда восточной кухни.

Чрезвычайно популярной была фотозона, гд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костюме ханбок. Все принявшие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твор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билетов беспроигрышной лотереи.

Ребята унесли с собой свои поделки, сладкие призы и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сообщает анив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ис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ША и России по КНДР

11 февраля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ись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заместитель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я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КНДР Марк Лэмберт встретился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горем Моргуловым и послом по особым поручениям МИД России Олегом Бурмистровым.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на сайте росси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состоялся предмет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всего комплекса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ключая ядерную. Была подчеркнута важность дальнейшего углубления координации усилий всех вовлечённых сторон. Обсуждались усилия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Как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посольство США в Москве, «разговор носил откровенный и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характер». Марк Лэмберт подтвердил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США достижению прогресса в отношениях с КНДР 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К и Россия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реду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вице-премьера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ки, министр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Хон Нам Ги с вице-премьером России, полномоч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ем Трутневым.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подписан план действий в дел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девяти мост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газ,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у,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морские порты,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судостроение, промышленные комплексы,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рыболовство. План действий включает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по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дву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между РК и Россией, а также в трёхстороннем, с участием КНДР. Юрий Трутнев принял также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по случаю Дня корейского инвестора, который отмечался 12 февраля.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прошли межкорей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12-13 февраля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прошло совместное межкорей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стороны также обсуждают вопросы реализации Пхеньян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от 15 июня 2000 год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дня 12 февраля в КНДР прибыла на восьми автобусах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й 251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ми крупнейших религиозных конфессий, двух главных профсоюз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РК, молодёжных, женски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Это первое с начала года межкорей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В первый день состоялись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ённые реализации вышеуказанной декларации, контактам Юга, Севера и других стран,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лигиозных, молодёжных, женских и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двух Корей. 13 февраля прошли церемония встречи рассвета, посвящённая наступлению Нового года, встреч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дложили Северу разл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обменов. Глава крупнейш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буддийской секты Чогечжон монах Вонхэн предложил организо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в храме Сингеса, а глава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Сеула Чо Хи Ён предложил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туденческие обмены в сферах спорта и искусства, а также провести совместную науч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ругов двух стра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фсоюзов также предложили Союзу рабоч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НДР провести межкорейскую конференцию трудящих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РК также обсудили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вопросы обмена, в том числе организацию марафонов, обмен материалами к 90-летию студен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ванчжу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другие.

Южнокорейцы считают подходящим возрастом для вступления в брак - от 30 до 35 лет

Южнокорейцы, не вступившие в брак, считают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м возрастом для создания семьи от 30 до 35 лет.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составленном на основе опроса 1.140 холостых мужчин и 1.324 незамужних женщин. В случае с мужчинами вышеуказанный ответ дали 58,7% респондентов. Более поздний возраст назвали 28,7%. Среди женщин за возраст от 30 до 35 лет высказались 62,8%, за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 17,4%.

(RKI)

В ПОИСКАХ КОРНЕЙ

В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О.П. Кузнецова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фотографий приехавшей из Японии Ким Садзик, в багаже которой – две персональные и пять групповых выставок с активными откликами на них в интернет-сообществах. Семейное прошлое и творческое настоящее причудливо пересекаются в необычных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в многосмысловых фотокартинах Ким Садзик, самоидентифицирующейся в нашем мире, ищущей родовые корни.

Сегодня Ким Садзик смело относит себя 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роживающей в Япон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изнание сво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сущности для фотохудожницы произошло в двадцатилетнем возрасте, когда для девушки была открыта семейная тайна – ее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не были этническими японцами, но при жизни скрывали св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начинается отчет и нового имени: на смену японским фамилии и имени (которые девушка носила с момента рождения), пришли корейские, которыми подписаны все ее творческие работы.

Сахалин давно интересовал Ким Садзик своей поликультурностью. Желание увидеть собственными глазами содружество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в условиях одного острова, стремление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взглядами на мир через призму корейской мифологии и собственных литературных сочинений подтолкнули фотохудожницу к поездке в Россию.

По словам фотохудожницы, все ее картины связаны между собой единой идеей. Девушка сочиняет сказки, а образное воплощение

придуманных героев обязательно содержит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Как объясняет Ким Садзик, созданные ею герои – животные, люди и ирреальные лица – это персонажи моногатари (этим словом японцы называют люб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которое может укладываться как в границы сказки или рассказа, так и целого романа). Литературная основа выставки отражена и в ее англоязычном названии «Story», переводящееся как история, сказка или рассказ.

Не все работы фотохудожницы сегодня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остров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О.П. Кузнецова размещены только некоторые из фотокартин,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и сочетаемость которых на выставке была определена художником Владимиром Овченковым.

Одной из притягательных по ярким цветам фотокартин стала работа «Шаман (с лезвиями из огня)». Сама фотохудожница так определяет замысел этой работы: «Шаман, который появляется в моей истории, – выполняет ритуалы при разделен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и животного. В руке у шаманки – пуповина. Обрезает пуповину только человек, животные перегрызают ее зубами. Кусок лавы в руках шаманки – это энергия земли, а на голове шаманки – женская тазобедренная кость».

В то время пока работы Ким Садзик экспонируютс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О.П. Кузнецова, фотохудожница планирует проехать остров с юга на север с остановкой в городе Поронайске.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На фотографиях. 1. Ким Садзик (слева) и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



дентки СахГУ: китаянка Лю Йю-кунь и японка Хаясака Томоми.
2. Фотокартина «Шаман (с лезвиями из огня)».

В Коре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щенный Олимпиаде в Пхенчхане

Сложилось такое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время удалось отмотать примерно на год назад: опять по всему Пхенчхану и Каннину плакаты на олимпийскую тематику, на улицах – тысячи веселых людей, в небе полыхают салюты, олимпийские арены вновь наполнились жизнью и вздрагивают от ликующих криков болельщиков. Сегодня в Каннине, в комплексе Ice Arena прошел крупный торжественный фестиваль "Снова Пхенчхан!", посвященный годовщине начала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которые стартовали ровно год назад - 9 февраля 2019 г.

Понятно, что неуместно сравнивать нынешний концерт и торжественную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ОИ-2018. И по масштабу, и по содержанию это события совсем разных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й", но те, кто лично видели оба события, признают: опять вернулся праздник и ощущение эйфории. Может это в какой-то степени преувеличение, но показалось, что нынешний концерт получился даже "зажигательнее", чем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ОИ год назад. Впол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 свою роль сыграл тот фактор, что сейчас корейцы все делал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себя и как они хотели, без оглядки на различное рода формальности и неизбеж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присущ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А потому была какая-то атмосфера домашнего праздника, где были рады видеть 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А так было и много похожего: и различ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и цветочные и лазерные шоу, и песни знаменитых К-поп групп, и сопровождавш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тигра те самые детишки, которые шли год назад, и даже "королева льда" - олимпийская чемпионка Ванкувера-2010 Ким Ён А, которую опять встретили бурей оваций. Но дети подросли и стали на год старше, фигуристка Ким Ён А

вышла не на коньках и в бальном платье, а в белом брючном костюме, да и олимпийский огонь загорался только на кадрах видеохроники. Тем не менее, концерт удался: корейцы вспомнили минуты триумфа, славы, сумев порадов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за себя, но и за других, кто участвовал в ОИ-2018. При этом всем предложили снова окуну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Олимпиады годичной давности, когда внимание всей планеты было приковано к корейскому поселку Пхенчхан и еще одному небольшому городу - Каннину.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концертом, который стал своего рода церемонией открытия программы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честь годовщины ОИ-2018, совсем рядом с Ice Arena шла битва хоккеистов. Южнокорейцы играли против латвийцев в рамках мини-турнира, который стал своего рода символом хоккейных игр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ссияне же, проходя мимо "Хоккейной арены Каннина", вспоминали, как чуть меньше года назад в этом комплексе в драматическом финале наша сборная вырвала олимпийское "золото".

Приятно было также, что и губернатор 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Чхве Мун Сун, который был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болельщиков "Олимпийских атлетов из России", также вспомнил об этом финальном матче хоккеистов, поздравив снова россий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А в Пхенчхане, Каннине, Сеуле, Лозанне и Берлине сейчас проходят раз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нова Пхенчхан!", которые продлятся до 17 февраля. Запланирована целая серия концертов, фестивалей,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конференций, форумов и иных акций. Ожидается участие не менее пяти тысяч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а также приток корейце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Каннин-Пхенчхан, РФ)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сосредоточатся на развитии несырьев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Основными векторами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на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станут туризм, добыча и переработка биоресурсов, производство в сфере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еобходимо вкладывать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не только в сырьевые отрасли экономики, но и в человеческий капитал.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наце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человек получал хоро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качеств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мел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и творчеством. Если мы создадим такие услов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удет не территорией добычи, а территорией развития. Тогда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появится мотивация жить на островах и вкладывать сюда инвестици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частности,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повышении качества сервиса, развит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сторанного и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создании современных рекреацион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курортов.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щающих регион с кратковременны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целями,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упрощенный визовый режим.

В отрасли добычи и переработки биоресурсов стоят задачи –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ить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создать сеть рынков, куда напрямую пойдет продукция от рыбаков, наладить прозрачный экспорт биоресурсов и переработанной продукции. Есть планы по созданию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епаратов, получаемых в процессе переработки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Экспортный потенциал име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элементов, содержащихся в термальных водах (например, йода и бора), а также производство лечебных грязей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созданы три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Курилы», «Южная», где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являются туризм, добыча и переработка рыбы и биоресурсов,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Благодаря ТОР привлечено более 1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нвестиций, создано свыше 400 рабочих мест. Общий объем планируемых вложений до 2026 года составит порядка 5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с созданием более 2000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и Углегорского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 режим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Статус его резидента уже получили 26 компаний-инвесторов. Общая сумма привлеч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до 2026 года должна составить 13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с созданием более 10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о итогам 2018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днялась с 79 на 37 место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который составляет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Сегодня главо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войти в ТОП-30. В частности, улучшить позиции в рейтинге позволяет упрощение процедур подключения к инженерным сетям и ускорение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й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В этом году аналог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составят и для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позволит выявить районы-лидеры и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их опыт на вес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льга Голодец поддержала идею созда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лагеря на Сахалине

С такой инициативой ранее выступил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азой для лагеря станут спортивные и друг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объекты,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к зимн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играм «Дети Азии». Первую смену в нем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уже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итогам своей поездки на Сахалин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ьга Голодец выразила готовность поддержать данный проект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 Игры «Дети Азии» выделил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мировой спортивной карте, и у них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о быть продолжение. Открытие в регионе спортивного лагеря позволило бы сохранить наслед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умать программу занятий для ребят в части спорта, культурной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составляющих,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Голодец.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ряд амбициозных проектов. Мы поддержим эти иде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чтоб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ни получили реальное продолжение.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оведения «Детей Азии», напомн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мощна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илась целая серия современ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оружений: уникальный лыже-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с самой современн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ишенной системой, сноуборд-парк, трамплинный ком-

плекс. Еще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стал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лучивший новую входную группу и канатные дороги.

– Важно, чтобы весь этот комплекс сооружений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лся и по окончан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должны быть максимально доступны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сех любителей актив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оэтому и родилась инициатива о создан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лагеря на базе уже созда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Здесь смогу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заниматься около 5 тысяч спортсменов. Уверен,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о стороны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эту идею нам удас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авел Колобков одобрил еще один проект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манежа. С появлением такого объекта спортсмены смогут круглый год тренироваться в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ях.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есть вс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жители вели здоровый и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Уже около 44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островитян регулярно занимаютс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Это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и этом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России – 40,5 процента, – сказал Павел Колобков.

На совещании федеральные 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проекты в сферах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По мнению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азвитие этих отраслей в области должно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лучшие мировые стандарты.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ыставки из фондов Русского музея, Эрмитажа, Музея Востока. Чтобы принимать экспозиции из ведущих музеев страны, в дальнейше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выставо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ширят сеть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Такую задачу перед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означ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открывающим социальные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из бюджета будут выделяться субсидии. Они помогут возместить часть затрат на аренду помещений и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что отразится на стоимости товаров.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егодня сохраняет лидирующее положение по показателю розничных продаж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держат на контроле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ценообразования и недопущения роста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 Сегодня мы уделяе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оддержк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Поэтому пе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расширения сети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где люди могут купить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по льготной стоимости. Уже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открыты 119 таких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из них 33 –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Цены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в среднем ниже среднеобластных на 17 процентов. Все это важн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ценам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я жители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каче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и на ярмарках. Данный формат торговли набир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на острова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ярмарках было продано товаров на 5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больше, чем в 2017.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делит 5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занятых в торговле. По оценк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расходов бизнеса способствует сдерживанию цен на розничные товары и росту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Справочно: В 2018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орот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и вырос почти на 18 процентов и достиг отметки 126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А количество объектов торговли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02. Остров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были компенсированы затраты на транспортные перевозки в размере 4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бъем привлеч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сферу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за минувший год составил 7,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а в виде налогов в бюджет региона поступило 5,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что почти на 16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уровня 2017 года.

Сегодня в сфер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работает около 58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или 20,7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жителей, занятых в экономи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ли и услуг до 2025 года.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губернатора Хоккайдо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по плану развит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до 2022 года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ом поставили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убернатор префектуры Хоккайдо Харуми Такахаси.

Перед подписанием плана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озвучила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азвит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 В этот раз хотелось бы поговорить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ах туризма,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одна из наших компаний намерена участвовать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сообщила Харуми Такахаси.

Член япо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Иски Итару выступил с инициативой,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Хоккайдо. Он считает, что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посещающих эту японскую префектуру, можно будет переправлять на российский остров. Иски Итару предложил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овать перекрестный тур блогеров и журналист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явить потребности туристов. Итоги эт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том можн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рекламных целях.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готовы развивать направления, предложенные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ой.

— И спорт, и туризм – приоритеты наш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Что кас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о его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начнется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иностранные компании. Для нас интересен опыт Японии по оснащению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Мы готовы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 сказа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общил, что сейчас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с крупнейшими российскими музеями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экспозиций их фондов на островах. В этом году в области пройдет несколько фестивалей, в том числе, авторского кино.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гласил жителей Хоккайдо к участию в культурных проектах Сахалина. Также прозвучало предлож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переработки леса 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стройиндустрии, медицин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префектурой Хоккайдо имеют более чем 20-летнюю историю. За это время главы регионов неоднократно обменивались визитами. Цель нынешней поездки губернатора Хоккайдо на Сахалин – подписание нового пла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I зимни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омогу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крепить и расшир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такт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VII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министром транспорта Монголии,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ой группы дружбы Монголии и России Бямбасурэн Энх-Амгаланом.

Как отмет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I зимни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омимо спортивной миссии несут еще и важную международную и деловую функцию.

–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называют Олимпиадой среди детей,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креплению связе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установлению дружеских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контактов.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и не только спортсмены, но и волонтеры,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из 20 государств. В ход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иалога у нас есть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найти новые сферы взаимных интересов и укреп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амках уже действующи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поблагодарил монгольскую сторону за учас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в I зимних играх «Дети Азии» на Сахалине. По его словам,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мерен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ах «Дети Азии»,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Монголии с 14 по 26 августа 2020 года.

Бямбасурэн Энх-Амгала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тил достойный уровень приема монголь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Все ребята из нашей сборной удовлетворены условиями проживания, тренировок и питания. Кроме того, в зимних играх «Дети Азии» участвуют 13 волонтеров из Монголии. На Сахалине они перенимают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завершению игр волонтеры станут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 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иностранной делегации.

Напомним, I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стартовали 9 феврал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стоится в 18.0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частниками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нут около 12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20 стран. В их числе – Казахстан, Монголия, Узбекистан, Туркменистан, Непа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Таиланд, Гонконг, Иордания, Таджикистан, Филиппины, Япония, Афганистан, Кыргызстан, ОАЭ, Индия, Кувейт, Сирия, Армения. Россию представляют команды из Москвы, Республик Татарстан, Башкортостан, Саха (Яку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яда регионов Сибирского, Уральского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Награды будут разыграны в восьми видах спорта: горные лыжи, сноуборд, биатлон, лыжные гонки, прыжки с трамплина,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шорт-трек и хокк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3·1 운동

3·1 운동(三一運動) 또는 3·1 만세 운동(三一萬歲運動)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3·1 혁명(三一革命) 또는 기미년에 일어났다 하여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이라고도 부른다. 대한제국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고종 독살설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고종의 인산일(=황제의 장례식)인 1919년 3월 1일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독립운동이다.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민족대표 33인으로 부르며, 그밖에 만세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간접적으로 만세 운동의 개최를 위해 준비한 이들까지 합쳐서 보통 민족대표 48인으로도 부른다. 이들은 모두 만세 운동이 실패한 후에 구속되거나 재판정에 서게 된다. 약 3개월 가량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강경하게 진압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인수가 106 만여 명이고, 그 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이었다. 한편 뉴라이트 신복룡 교수나 일본의 야마기 겐타로는 약 50만 명 정도가 3·1 운동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1 운동은 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3·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에 의한 강경책을 펴던 조선총독부는 민족분열책인 일명 문화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되었다. **(위키백과 자료에서)**

선언서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이 독립국이며 한국인이 자국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전세계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 대대로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를 선언하며, 이천만 민족의 정성을 모아 이를 두루 밝히며, 영원한 민족의 자유와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제기하니, 이는 하늘의 명백한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로이기에 세상의 어떤 힘도 이를 막거나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희생이 되어 유사 이래 수천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빠뜨린 고통을 당한 지 이미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광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탬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이겠는가!

슬픈 일입이다.

오랜 억울함을 떨치고 일어나려면, 현재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땅에 떨어진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체면과 도리를 떨쳐 일으키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없는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안겨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바로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천만 겨레마다 마음속에 칼을 품은 듯 굳게 결심하니, 인류 공통의 성품과 이 시대의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주의라는 창과 방패로 호위하고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싸우니 어느 강도를 꺾지 못하겠는가!

물러가 일을 피하니 무슨 뜻인들 피지 못하겠는가!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갓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는 것이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학자들은 강단에서, 통치자들은 실생활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대대로 닦아 온 찬란한 위업을 식민지로 삼아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여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무도함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책찌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재를 꿈꿈이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목은 옛 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

을 뿐이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결코 목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시샘하여 쫓아내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어 있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배들의 부귀공명의 희생이 되어 압제와 수탈에 빠진 이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고쳐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공정하고 인간다운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침략, 강정이었으므로 그 결과는 마침내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을 보라!

용감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을 뜯어 고치고, 참된 이해와 선린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서로 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인 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원한과 분노에 쌓인 이천만 민족을 폭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오직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사악 중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가 갈수록 두터워진 결과,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 분명하니, 오늘 우리 한국의 독립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의 선진후원국으로서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악몽처럼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동양의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수적인 받침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는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무력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고 있다.

과거 한 세기 동안 같고 닮으며 키우고 기른 인도주의 정신이 이제 막 새로운 문명의 밝은 빛을 온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였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고 있다.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통을 막아 꿈쩍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다.

우리가 본래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키고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찬란히 꽃피우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떨쳐 일어났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급자리로부터 분연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더불어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다.

억만대의 조상님들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로운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호위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다.

공약 삼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흔쾌히 발표한다.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한다.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김병조 나인협 이명룡 박준승 오세창 최린 길선주 김창준 양전백 이승훈

박희도 오화영 한용운 이필주 권동진 양한묵 이중훈 박동완 정춘수 홍병기 백용성

권병덕 유여대 이종일 신훈식 최성모 홍기조 김완규 나용환 이갑성 임예환 신석규

<아시아 아이들> 제1회 국제 동계청소년경기의 이모 저모 새고려신문사 기자들의 취재 자료

(3면의 계속)

이날 한국 남녀 선수 모두가 금·은·동 메달을 따내 동포들을 비롯해 응원하는 관람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또한 여자 피겨 쇼트프로그램에서 유명 선수가 1등을 하면서 더욱 자부심이 생겼다.

이하운 선수는 알파인 스키(회전)에서 2등을 해 또 하나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대회 기간 내내 유즈노사할린스크 여러 곳에서 문화 프로그램도 펼쳐졌다. 주정부 청사 앞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활동교실 겸 놀이행사가 펼쳐졌고 여러 쿡쿠르와 공연, 야쿠치아, 노워시비르스크, 모스크바 등 무용단과 배우, 가수들이 출연하여 스포츠대회는 축제분위기였다. 행사장 곳곳 마다 경기 마스코트들이 사람들의 기분을 돋우고 자원봉사자들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필자는 MBAND 공연을 가볼 기회가 있었다. 모스크바 팝그룹은 청소년부터 중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솔리스트 중 카자흐스탄출신 고려인 동포인 초이(최) 아나톨리가 아름다운 목소리와 역동적인 춤으로 인기가 많아 보기가 좋았다.

인나 파블렌코 상업식품부 장관은 선수와 코치,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해 3000여 명의 경기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식품 11톤의 양식을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밥과 김치가 인기가 있고 외국의 불교권과 이슬람권의 선수들을 고려해 돼지고기는 제공하지 않고 빵 종류(피로즈키, 불로즈키)가 《잘 팔린다》했다.

이번에 연방의 언론 매체들과 다른 국가 언론사들도 와서 많은 취재를 했다. 취재 대상으로 메가팔라스 호텔 레스토랑의 김 파벨 주방장이 요리하는 한식 해물찜도 취재했다.

이번에 한국에서 특별 응원단도 찾았다. 강원도 학생과 인솔 교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학생교류단이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찾았다. 사할린주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간 체결한 우호교육교류 합의에 따라, 작년 2월 사할린주 학생 교류단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를 방문했고 이번에는 제1회 <아시아 아이들>대회를 강원도 학생교류단이 찾았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쇼트트랙과 피겨 경기를 관람한 기회가 있었고 사할린 학생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생활체험, 문화탐방, 활동교실 등을 했다고 전해졌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Оценивали творения юных дарований ведущие художники-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лены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специалисты экспозиционно-выставочного отдела музея.

На выставке посетители увидят живопись, графику, линографию, скульптуру, компьютерную графику и произведения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ыставка-конкурс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аленькие шедевры о большом мире" существует с 2002 года и проходит один раз в четыре года. Он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выявлени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одаренных юных художников, сообщает музей.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стоится 18 февраля в 15:0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Юные анивские театралы стали лучшими на "Океанских подмостках"

С 22 января по 8 февраля анивский театралы коллектив "Остров детств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творческой смен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етского центра "Океан"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Знаменательно, что Год театра для юных театралов со все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начался с "Океанских подмостк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 конкурса театралов мастерства. География его участников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от Камчатки до Иван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оказалось очень насыщенной. Ребята занимались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реативили в творческих лабораториях, обменивались опытом и, наконец, определяли лучшие театр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фестивале представляли две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из Анивы и Поронайска. Анивчане показали спектакль по письмам, воспоминаниям, стихам Беллы Ахмадулиной, Анны Ахматовой, Иосифа Бродского, Майи Плисецкой, Одри Хепберн (Режиссеры спектакля: Алла Хуташеева и Юлия Тронина).

Спектакль получился атмосферный, решенный через яркие образы. В результате — первое место. Анивский любительский театралы коллектив "Остров детства" признан лучшим от Камчатки до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анив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러시아 소비자감독원, 가장 유해한 세탁세제 밝혀

러시아 소비자감독원의 전문가들이 7개의 세탁세제 검사를 진행했다. 연구소로 다음 업체들의 세탁세제들이 들어왔다. — '미프', '타이드', '솔티', '비맥스', '클린오케이(Clean OK 우리 가족)', '비올란', 'AOS (나는 태어났다)'(업체에서 유아용품 세탁세

제로 선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하나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전체 검사된 모든 세제에 일반적인 공통점의 하나는 세탁 후 3번째 헹굼 후에도 세탁물에 활성세제 잔여물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들은 세 번의 헹굼 후에 추가로 헹궈줄 것을 권장했다.

러시아 소비자감독원 감정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세제로 '미프'와 '비맥스'를 우수 순위에 올리고 '솔티'와 '타이드'를 세 번째로 꼽았다. 그러나 유아용품 세탁세제인 'AOS / (나는 태어났다)'는 독성이 인식되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로스콘트롤(러시아 소비자감독원)은 개인 조직이 아니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자원을 알리기 위한 독립 정보단체이다. 등록 번호는 ЭЛ ФС 77-52743. 로스콘트롤은 제조업체들에게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로스콘트롤이 의뢰한 모든 연구는 공인된 연구실에서 진행되며 조사기록은 웹 사이트에 게시된다."고 러시아 소비자감독원이 알렸다.

Эксперты назвали самый опасный стиральный порошок

Исследование семи стиральных порошков провели эксперты Росконтроля. В лабораторию отправились средства для стирки белья следующих брендов: «МИФ», Tide, Sorti, BiMax, Clean OK «Наша семья», «Биолан», AOS / «Я родился» (он обозначен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как порошок для детского белья). По итогам исследований одна из марок попала в «черный список».

Для всех исследованных порошков характерно одно общее качество — даже после третьего полоскания на одежде остаются следы активных веществ. Поэтому эксперты рекомендовали провод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олоскание постиранных вещей даже после трех полосканий.

По итогам исследований специалист Росконтроля сочли самыми эффективными порошками «МИФ» и BiMax. Sorti и Tide взяли «бронзу». А вот детский порошок AOS / «Я родился» был признан токсичным и попал в черный список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контроль — это не ча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это независимое СМИ, интернет-ресурс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и защиты потребителей.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 ЭЛ ФС 77-52743. Никаких коммерческих услуг для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Росконтроль не предлагает. Никаких дочерних структур Росконтроль не имеет. Вс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заказу Росконтроль проводятся в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лабораториях, протоколы публикуются на сайте», — сообщи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한국 인천에 거주하시는 구길순님께 보내는 축하문



사랑하는 우리 큰어머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강과 번영, 평화와 부요함,
행운과 평안, 큰 복을 기원합니다.

생신날에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2019년 2월 20일에는 큰어
머님(тетя Л) 마음에 노래가 흐
르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시는 날이 되시길...
축복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씨 가족의 작은 집 드림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 · 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십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